

학교영역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지난 2012년부터 자발적불편운동을 펼쳐 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발간했다.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리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여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며 이웃과 약자를 위해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자는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은 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집중적으로 실천할 행동 30가지를 선정해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그 중 학교영역에서 실천가능한 일들을 소개한다.

1. '진짜 공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는,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일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고 어린 시기부터 자신의 때에 맞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과한 욕심으로 본의를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는 아이의 실력보다 한걸음 뒤에서 따라가며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독서하는 능력을 키우고,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예상문제를 짚어 주는 학원을 다니거나 남보다 진도를 더 빨리 나가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배움에 대한 즐거움에서 비껴가게 한다. 사교육에 의존해온 타율적인 학생이나 남과의 경쟁을 선점하기 위해 선행학습과 같은 방법으로 정직한 경쟁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 삶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 아이에게 무리한 진로를 설정하여 부담을 지우기보다 성적과 등수가 아닌 미래 직업에 대해 관심과 의욕을 갖도록 북돋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주어진 본연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찾아 누리도록 많은 믿음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2. 선생님, 쉬는 시간에 학생과 함께해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공간은 쉬는 시간(44.5%), 교실(45.2%)이다. 즉,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폭력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아이들이 바라는 가장 큰 대책은 소박하게도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함께 계시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쉬는 시간 10분은 귀한 시간이지만 쉬는 시간에 교무실 컴퓨터 앞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있기를 선택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쉬는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책상을 마련해 두도록 하자. 교실에 있는 동안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거나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거나 한 명씩 불러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중등교사의 경우, 수업 종료 종이 울리면 바로 수업 준비를 해서 일찍 교실로 들어가자. 수업이 연속으로 있을 경우 교무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다음 교실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초등교사의 경우 티타임이나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교실에 있을 동안에도 행정업무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3. 교활한 커닝문화, 정직함으로 맞서라!

과거에는 커닝이라 하면 친구의 시험지를 살짝 훑쳐보는 정도였지만, 최근의 커닝은 더 담대하고 교묘해져가고 있다. 심지어 커닝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커닝을 하지 않는 학생이 미련한 학생 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커닝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커닝을 돕지도 말아야 한다. 부끄러운 A보다는 당당한 B를 받자는 것이다. 두 번째, 서명 캠페인이나 피켓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 커닝문화 추방 캠페인을 진행해 보는 것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짐이 될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어른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성적이 조금 못 나오더라도 정직히 시험을 본 것과 공부한 자세를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런 부모와 선생님을 통해 자녀와 학생들은 정직의 중요성을 배울 것이다. 커닝(Cunning)은 교활하다는 뜻이다. 정직과 바른 인성, 교양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 교활한 커닝문화를 배운다면, 그들이 이끌어갈 사회는 볼 보듯 뻔하다. 우리가 먼저 작은 것부터 정직함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대학 내 품앗이, 대리출석은 이제 그만

대학생들 사이에 대리출석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교양수업 등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곤 한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대리출석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거나 받거나 하며 대리출석 품앗이는 계속된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서로 대리출석을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수업에 오지 않은 친구의 이름이 호명될 때 자연스럽게 대신 대답을 해주기도 한다. 신앙의 열매 혹은 지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한다. 정직함, 의로움, 공정함.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성품이기도 하다. 대리출석은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게 하며, 또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을 속이는 행동이다. 요즘에는 대학가에 대리출석 아르바이트가 생겨날 정도로 아무 죄책감 없이 거짓행동들이 만연해져 가고 있다. 이런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대학 분위기에서 대리출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출석하여 수업에 임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발적 불편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1. 음식물 남기지 않기

학생과 선생님, 교수님들은 매일 점심 한끼를 학교에서 해결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엄청나다. 학교 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

2. 소풍, MT갈 때 일회용품 챙기지 않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년 소풍을 간다. 대학생들은 MT를 간다. 도시락도 싸고 각종 간식들도 챙기는데, 이를 준비할 때 편리보다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품을 줄여보자.

3. 강의실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대학생들은 한 강의실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인지 수업시간 이후 강의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고 한다. 잠시 사용하는 강의실이라도, 다음에 사용하는 학생과 교수님들을 위해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

4. 문구류 끝까지 사용하기

각종 문구류를 끝까지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서 새로 사게 된다. 끝까지 아껴서 사용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선생님과 제자간 서로 존중하기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폭력과 갈등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선생님은 학생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제자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정직하게 공부해서 실력 쌓기

지금 나의 성적이 정말 나의 실력인지를 돌아보자. 레포트를 베끼지는 않았는지, 커닝을 하지는 않았는지, 단지 점수만 높이기 위해 요령을 피우지는 않는지, 정정당당하게 공부하여 진짜 실력을 쌓도록 하자.

※ 기윤실에서 발행한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요약하였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윤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emk.org